2022년 6월 26일
구역말씀나눔(22-15)

주일예배 온라인 구역모임

- 본문 : 창세기 16장 7~16절
- 제목 :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El-Roi)"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 마음의 문을 열며

거리마다 살펴보면 정말 많은 곳에 카메라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나쳐 보내면서 우리 삶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확진자를 보호하면서 다른 비확진자들도 보호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십니다. 그 의도와 목적은 절대적 선한 목적과 방법으로 이루시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이르는 곳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슬픔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며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베푸실 복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살면서 나의 삶이 너무 외롭고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때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이나 결정을 함으로 지금 생각해도 스스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새롭게 깨닫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2. 오늘 고통을 당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갈에게 무슨 말을 전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16:7,9, 롬8:17~18)

3.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하갈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서 이와 비슷한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창16:10~11, 눅1:30~31)

4. 오늘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을 향해 우리의 삶의 고난에 깊이 개입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고난을 넘어 장차 나타내실 영광을 생각할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창16:13~14)

· 삶의 열매를 거두며

5.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엘로이(El-Roi),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위한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